

Venture Focus



넥스지텔레콤

CCD 방식 고화소 카메라모듈 개발

<http://www.nexgtel.com>

넥스지텔레콤(대표 김선섭)은 그동안 일본업체가 독점해오던 고체촬상소자(CCD)방식의 고화소 카메라모듈을 개발·발표했다.

이번에 개발한 200만 화소 및 400만 화소 CCD 카메라모듈은 JPEG방식의 이미지 압축 기능을 내장, 초당 30프레임의 동영상 촬영과 7cm 접사 촬영이 가능하다. 넥스지텔레콤은 이 제품에 이어 오는 3분기에 600만 화소 제품 개발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 1200만 화소 제품도 내놓을 계획이다.

김선섭 대표는 "자체 개발 부품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려 일본 제품보다 20% 정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며 개발에 따른 소감을 밝혔다. 이 제품은 이미 국내 주요 휴대폰 업체의 품질 검사를 마쳤으며 오는 5월에 출시될 휴대폰에 처음 사용될 예정이다.

핸디소프트

BPM 기반 시스템운영자동화 솔루션

'핸다-오토플로우' 출시

<http://www.handysof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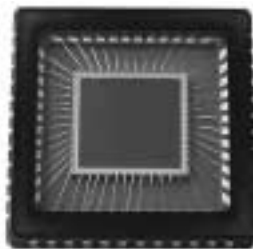
핸디소프트(대표 김규동)는 시스템관리시스템(SMS) 전문업체인 쿠퍼시스템즈(대표 송세종)와 공동으로 업무프로세스관리(BPM) 기반 시스템운영자동화 솔루션인 '핸다-오토플로우'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시스템 운영자들이 회사 내의 각종 서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시스템별로 서버 단위가 아닌 업무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솔루션이다.

이에 따라 시스템 운영자들은 이 제품을 통해 단위 업무에 대한 진행 모니터링과 제어를 할 수 있으며, 시스템 정기 점검 및 장애 복구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핸디소프트 관계자는 "금융권·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오픈시스템, 메인프레임 환경에서 업무 단위 시스템 운영 자동화를 원하는 고객에게 필요성과 운영방법론을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픽셀플러스

자동 초점 200만 화소 CIS 'PO1200N' 출시

<http://www.pixelplus.com>

CMOS 이미지센서(CIS) 개발업체인 픽셀플러스(대표 이서규)는 자동 초점 기능이 내장된 200만 화소급 센서 반도체인 'PO1200N'을 개발·출시했다.

이 제품은 0.18 μ m 공정을 이용했으며, 기존의 2칩이나 3칩으로 해결했던 자동 초점 기능을 단일 칩에 실장한 것이 특징이다. 자동 초점 기능이 단일 칩에 구현됨으로써 휴대폰 시

장에서 요구하는 화질·성능·편의성을 충족하였으며 모듈 제작시 조립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도 영상 신호처리 프로세서(ISP), 조리개 개발 및 조임 기능(Iris), 기계적 셔터, 1.8V 단일 전원 구동 기능 등을 지원한다.

회사 관계자는 "저가 솔루션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값이 비싸 지연된 200만 화소 자동 초점 조절 장치 분야에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멀티마인드

골프정보 포털서비스 '골프웹' 오픈

<http://www.golfweb.co.kr>

멀티마인드(대표 이태화)는 골프정보 포털서비스인 '골프웹'을 오픈하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골프웹은 다양하고 신속하게 골프의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므로 골퍼가 대중 스포츠로 거듭나기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국내외 골프 뉴스, 프로골퍼 정보 및 레슨 정보, 골프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쇼핑몰, 골프 컬럼, 동호회, 구인 구직 등의 정보와 골프장 안내, 골프 연습장 소개, 골프 투어 일정 안내 및 회원권 안내, 골퍼를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싱글로 가는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골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골프웹은 인터넷 중계를 통한 국내외 경기, KPGA, KLPGA, PGA, LPGA 등을 제공하여 해외의 각종 골프뉴스를 보다 빠르게 중계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Venture Digest>는 벤처기업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드립니다.

신제품, 신기술, IR소식 등 알고 싶은 뉴스를 보도자료(기사, 사진)와 함께 협회 홍보팀으로 보내주세요.

협회 홍보팀 박미선 주임(02-6009-4100, 내선 301, Fax. 02-6009-4115, E-mail : pmsun@kova.or.kr)



소프트정보통신

UI개발 솔루션 '가우스4.0' 출시

<http://www.shift.co.kr>

기업용 솔루션 전문업체 소프트웨어정보통신(대표 원동학)이 X인터넷 기반의 사용자인터페이스(UI) 개발 솔루션인 '가우스 4.0' 버전을 자체 개발·출시했다.

이 제품은 XML 데이터 서비스 및 유니코드 지원, 데이터셋을 이용한 대량 데이터 처리기능을 보강한 것으로 서버 트래픽 감소로 업무 효율성뿐만 아니라 개발 생산성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미 가우스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부, 금융결제원 등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기업은행·삼성전자 등 국내 대형 준거사이트에 공급되어 있어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품 출시를 계기로 소프트웨어정보통신은 X인터넷 사업을 강화키로 하고 CTO를 새로 영입하는 등 연구개발(R&D) 조직을 강화했으며, 특히 일본을 기점으로 해외 영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레자인

종이와 잉크가 필요없는 인터넷 팩스

'팩스 온 넷'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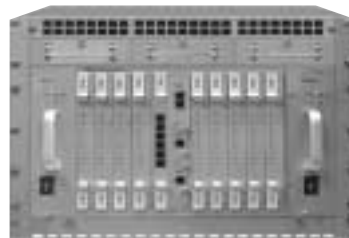
<http://www.elesign.com>

일레자인(대표 장도호)은 종이와 잉크 없이 팩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팩스 송수신 시스템을



'팩스 온 넷'을 출시하고 특허를 출원했다.

이 제품은 출력물이 없는 상태에서 팩스 업무가 가능하며 수신시 사내 네트워크와 연결, 기존 팩스번호로 받은 문서를 이미지로 변환해 해당 사용자의 이메일로 보내 준다. 팩스 송신 시에는 PC에서 원하는 번호로 문서를 보낼 수 있고, 일반 팩스장비에서만 지원하던 예약과 동보 전송 기능도 지원한다. 기존 팩스를 사용할 때 업무 과정을 대폭 축소할 수 있어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한다. 장도호 대표는 "중소·벤처업체를 겨냥해 개발한 제품"이라며 "전화 요금과 용지·잉크 토너 사용 비용을 일반 팩스 대비 80%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출시 소감을 밝혔다.



다산네트웍스

지멘스 브랜드로 통신장비 첫 출시 예정

<http://www.da-san.com>

세계적인 장비업체인 지멘스의 계열사로 편입된 다산네트웍스(대표 남민우)가 3월 초에 지멘스 브랜드로 첫 제품을 내놓는다.

이에 따라 국내 벤처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세계적 기업의 피인수합병 사례를 만들어 벤처의 또 다른 성공 모델을 선보였던 다산네트웍스는 세계 시장 진출의 공식적인 첫 발을 내

딛게 됐다.

다산네트웍스는 현지 제품 출시 후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되는 '2005 세빗'에 이 제품을 출품, 첫 공략 목표인 유럽 시장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마케팅 작업도 시작할 계획이다.

남민우 대표는 "지멘스 브랜드의 제품 출시는 다산네트웍스가 세계적 통신·장비 회사로 발돋움하는 주춧돌을 놓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지멘스 브랜드로 올해 유럽 시장에서만 올해 예상 매출의 33%인 5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우하이테크

초소형 스피커, 진동모터 부품 출시

<http://www.shinwoohitech.co.kr>

휴대폰 스피커 제조업체 신우하이테크(대표 주상호)는 4.5mm의 초소형 스피커·진동모터 결합품을 개발·출시했다

이 제품은 코인타입의 진동모터와 스피커를 결합한 제품으로 기존에 실린더 타입 진동모터와 결합했던 제품보다 크기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직경15mm, 두께 4.5mm이며 일반적으로 고출력 휴대폰 스피커(17mm)보다 크기가 작으면서도, 같은 수준의 출력을 낼 수 있다. 모터 안의 자석이 스피커에도 영향을 미쳐 음향효과도 높였다. 또, 스피커와 리시버, 버저 역할을 모두 할 수 있으며 최근 중국 특허와 국내 실용신안을 획득한 제품이다.

회사 관계자는 "모터의 자석을 이용해 스피커의 음압을 높여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했다"며 "이 제품으로 휴대폰 공간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